수시 등급컷 미달 속출할 듯…“중위권 수험생 혼란”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 1등급 비율 급감…정시 안정지원 경향 예상

대학별 환산점수·성적 반영 점수 달라 유·불리 세심하게 따져봐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남은 입시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 진학 담당 교사들은 중·하위권 등급대에 수험생들이 몰려 있는 있는 탓에 정시에서 안정지원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입시업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체감 난도가 상승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시 탈락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최저학력 미달 상당수 달할 듯= 올해 수능에서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4.71%로 전년(7.83%)에 비해 줄었는데, 상위권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1·2등급 인원이 1만6740명 감소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어와 수학도 어렵게 출제돼 수시 지원자가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있는 전형에 지원하고 최저 기준을 맞춘 수험생이라면 수시 추가합격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성학원 임성호 대표도 “표준 점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인문, 자연계 모두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 과목 유·불리, 문이과 교차지원 등 통합수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재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N수생, 예상보다 고전=9월 모의평가 이후 가세한 반수생, 재수생, N수생들이 예상보다 힘을 쓰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6점 올랐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19학년도와 같았다.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2020학년도 수학 나형(149점) 이후 가장 높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입시업계에서는 통상 140점대 중후반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본다.

국어,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140점대 후반~150점대를 기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받은 비율 역시 4.71%로,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였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토록 치솟고 영어 1등급 비율이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상위권에서 선전해야 할 반수생, 재수생, N수생의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 ( )는 최고점

등급	국어 표준점수	국어 비율(%)	수학 표준점수	수학 비율(%)	영어 원점수	영어 비율(%)	한국사 원점수	한국사 비율(%)
1	133(150)	4.07	133(148)	4.20	90	4.71	40	18.81
2	125	7.40	126	7.72	80	18.17	35	14.06
3	116	12.70	118	11.78	70	23.96	30	15.68
4	106	17.74	107	16.36	60	19.41	25	15.31
5	95	19.57	94	20.05	50	12.26	20	13.06
6	84	16.60	80	17.85	40	8.23	15	10.47
7	73	11.73	74	11.84	30	6.32	10	8.30
8	63	6.45	70	7.01	20	5.25	5	3.88
9	63미만	3.74	70미만	3.20	20미만	1.69	5미만	0.44

연합뉴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반수생이 급증했는데, 이들의 수준이 기대치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재수생들의 성적 대 하락으로 표준점수가 기대치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위권 수험생들 혼선 겪을 듯=이번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도 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학담당교사들은 일단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몰려 있는 중위권이다. 이들은 예년과 달리 소신 지원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 입시에서 학생들은 보통 상향 2곳, 안정 1곳으로 기준을 잡는다.

하지만, 올해 중위권이 두터워지면서 학생들이 입시에서 안정 2곳, 상향 1곳으로 원서를 쓰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창욱 광주진협회장(대동고 진학부장)은 “대학별 환산점수, 성적 반영 점수가 달라 학생들은 성적통지표를 받아보고 진학하는 대학의 유·불리를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광주인권사무소 개선 방안 토론회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에게 CCTV로 감시당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전자감시에 노출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광주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주 광주시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 전자감시 상담 현황과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청소년은 업주가 일하는 시간 내내 CCTV감시를 해 손님이 없을 때 휴대전화로 보는 시간은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왔다.

만화카페에서 일한 B청소년은 ‘업주가 CCTV를 보며 메시지로 근무지시를 한다’고 고충을 상담을 해왔다고 밝혔다. 손님이 나가면 업주는 ‘몇 번 손님 나갔다. 얼른 치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힘들어서 잠시 CCTV사각지대로 피해 있으면 ‘어디 있냐? 안보인다’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것이다.

PC방에서 일하려고 하던 C청소년은 근로계약서에 ‘본 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용자 등은 CCTV를 이용해 시설물 관리, 근무자 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지’ 상담을 요청했다.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하던 D청소년은 인근에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사장의 가게에 업무차 들렸을 때 D청소년이 일하는 가게의 다른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자 너무 놀래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사업장 전자감시와 청소년 정보인권’의 제목의 발제를 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노동자 근무 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시설안전·영업비밀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이용 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시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교사의 역할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시교육청 내 노동인권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생을 넘어 학부모 및 시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해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7일 광주시 서구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1회 광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참가자들이 어린이교통사고 방지 결의를 다지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일본 눈치보느라 인권상 하나 못 주는 나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무산을 두고 “일본 눈치보느라 인권상 하나 못주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하루 앞둔 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 훈장을 주는 것조차 일본 눈치를 살펴가며 결정해야 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행정안정부에 정부 포상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1일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히며 무산됐다. 이후로도 외교부는 ‘이견’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인권위의 협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0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 절차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강제징용 관련 정부해법이 이행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외교부는 양금덕 할머니 수상반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구실로 삼았지만 그 내막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며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서훈 수여 문제가 왜 외교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포근한 주말 낮 최고 기온 20도 봄날씨

주말 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의 아침최저기온은 2~10도, 낮최고기온은 17~20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평년(최저기온 영하 3~3도, 최고기온 7~10도)보다 5~10도 높은 기온이다.

9일에도 아침최저기온 6~12도, 낮최고기온은 16~21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따뜻한 온기를 한반도로 유입시키고, 맑은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의 기온이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의 12월 낮 최고기온 극값은 지난 2018년 12월 2일 기록한 19.8도이며, 전남은 목포 20.8도(1953년 12월 1일), 여수 20.2도(1953년 12월 1일), 완도 20.2도(2016년 12월 22일) 등이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이 12월 중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에 머무르고, 1월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이 7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12월 기온은 18~24일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 25~31일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다. /유연재 기자 yjyou@